

# 함양군-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업무 협약

기사입력 2023-12-21 22:41:26

환경보건서비스 개발·공동 협력방안 모색, 운영 활성화·환경보건 전문성 보충 등



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와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와 전문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./사진: 함양군 제공

[대한경제=김옥찬 기자]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와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와 전문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.

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성주현 센터장, 국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.

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,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건강캠프 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.

이번 협약은 △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서비스 개발 및 시행 △공동 협력 방안 모색 △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에서 의뢰한 도움이 필요한 경남도민을 위한 건강강좌 △상호기관의 복지 사업 및 환경보건사업 홍보 등에 대한 상호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 내용을 담고 있다.

진병영 군수는 "오늘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다"라며 "더욱 전문화되고 공공성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단체와 학교에서 참여하여 함양군의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

성주현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장은 "오늘날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로 건강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"라며 "환경과 보건의 우리의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와의 업무협약은 경남도민의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" 이라고 밝혔다.

한편 올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(대봉힐링관)는 건강체험기기 및 친환경만들기 체험 등 상시프로그램에 1487명이 참여했고 산림치유, 대봉숲 건강힐링캠프 등의 교육 및 예약프로그램에 984명이 참여하여 총 2471명이 대봉힐링관에 방문했다.

휴양밸리와 관계자는 "내년에는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의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받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 다시 찾고 싶은 대봉힐링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함양=김옥찬 기자 kkkochan20@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정치사회부

**김옥찬 기자**

kkkochan20@naver.com

- 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